

오늘의 사건사고

시장 골프채 휴친 골퍼 입건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골프연습장 회원의 골프 용품을 휴친 혐의(절도)로 레슨골퍼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전 10시께 광주 광산구 모 실내골프연습장에서 회원 B(31·여)씨의 물품보관함에 든 골프가방과 골프채(300만원 상당)를 휴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입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A씨는 레슨 업무를 그만두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체불 임금(레슨비 등)으로 갈등을 빚던 사장을 곤란하게 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휴친 골프채를 골프 용품 중고매장에 되팔아 빚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기 기자

광주 순환도로서 트럭간 충돌

13일 오전 6시40분께 광주 남구 송하동 제2순환도로 송암터널게이트 요급소(급호동 방면)에서 김모(52)씨가 몰던 5t 트럭이 송모(65)씨의 1t 트럭과 시설물을 들이받고 화단에 멈춰섰다. 이 사고로 5t 트럭 운전자 김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옮겨졌으나 숨졌다. 송씨도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요금 정산 과정에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동주 기자

70대여성 폭행 미수 60대 검거

영광경찰서는 7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간강미수)로 A(6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20분께 지역내 B(78·여)씨의 집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B씨 옆집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같은 날 오후 3시52분께 터미널 주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직장 동료였던 B씨의 아들과 친분이 있어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광=류정호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www.homae.co.kr

제2의 가슴기살균제 사고 막는다

세정제·합성세제 '안정성' 입증때만 판매 가능 '무독성·친환경' 등 오해 광고 문구 사용도 금지

내년부터 모든 살생물 물질과 살균제, 살충제 제품에 대해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오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이들 법은 가슴기살균제와 같은 모든 살생물제에 대해 제조·수입업체가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시장 유통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판매 승인을 받더라도 제조·수입업체는 소비자가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의 목록,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에 따른 위험성 등을 알 수 있게 제품 겉면에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법 시행전 국내 유통중인 살생물 물질은 산업계가 준비할 시간을 고려해 승인유예를 인정하기로 했다. 기업이 유예를 신청하면 환경부는 물질의 용도, 유해성·위해성 등을 고려해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승인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또 '무독성' '친환경' 등 제품의 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광고 문구를 금지된다. 제품에 방부·항균 등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목자에 맞게 사용하게 했다.

생활화학제품 중 3년마다 안전확인검사 의무 대상도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 등으로 확대된다. 제조·수입업체는 검사결과를 포함한 제품 정보 일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금지 및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해 기업이 상시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도 이번에 개선한다.

국내에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 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재의 체계에서, 앞으로는 연간 1t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

로 등록되도록 개편했다.

특히 국민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발암성, 물연변이성, 생식독성(CMR)' 물질과 국내 유통량의 99%에 해당하는 100t 이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1년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만약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액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판매액 산정이 관련한 경우 10억 이내로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밖에 CMR 물질, 고축적성·고잔류성 물질, 폐·간 등 특정장기에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등 인체 위해가 높은 물질은 중점관리 물질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개별사업자 기준으로는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일정기준(하위범위에서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해 기업이 유해성 자료를 확보·등록하도록 했다. /뉴스1

날씨

포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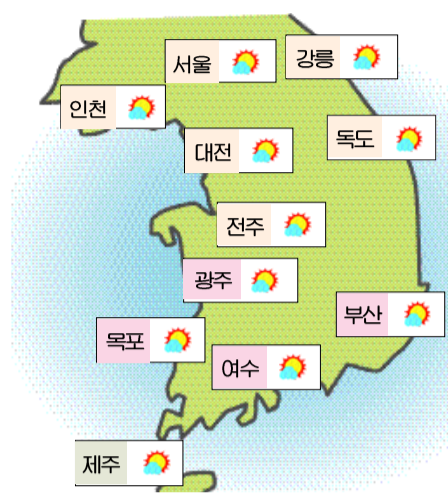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간날씨

기상청내진행 국민없이 131(광주)기상청

날짜	13일(화)	14일(수)	15일(목)	16일(금)	17일(토)	18일(일)
날씨						

지역	날씨	강수량	
		오전	오후
광주		6-22	0 0
나주		6-22	" "
담양		6-22	" "
순천		6-22	" "
영광		6-22	" "
목포		6-22	" "
무안		6-22	" "
진도		6-22	" "
여수		6-22	" "
광양		6-22	" "
고흥		6-22	" "
안동		6-22	" "
해남		6-22	" "
장흥		6-22	" "



서·남해 날씨

해역	풍향	풍속	파고	
서해남부	알바다	남-남서	4-7	0.5-0.5
	면바다	남-남서	4-7	0.5-0.5
남해서부	알바다	남-남서	4-7	0.5-0.5
	면바다	남-남서	4-7	0.5-0.5

나사 풀린 광주경찰... 잇따른 음주운전 '도마위'

술 취해 사고 내고 단속 걸려 입건... 기강해이 논란

광주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경찰 간부들이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술에 취해 운전하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려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서부경찰서 소속 A52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9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 북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9%(운전면허 정지 수치·위드마크 적용)인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위는 아파트와 800m 가량 떨어진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는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오전 0시2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북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남부경찰서 소속 B51경위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경위는 지난 1일 오후 10시45분께 북구 오치동 호남고속도로 용봉나들목 주변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1%(면허 취소수치)인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혐의다.

B경위는 북구 용봉동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이들을 징계위원회 회부할 방침이다. /김도기 기자

허기받지 않은 잡어 포획한 조개잡이 어선 적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허기받지 않은 어종을 포획한 근해형 망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개잡이 어선인 A호는 지난 12일 오후 8시 40분께 조업을 마치고 충남 서천군 마량포구로 귀항하는 과정에서 총 어획량 30kg 중 30% 이상이

허기받지 않은 잡어로 확인돼 적발됐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근해형망어업은 패류만 포획할 수 있으며 기타 수산동물은 총 어획량의 10% 이내까지 혼획이 허용된다. /뉴스1



미투운동 지지 대학생 기자회견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운동 지지 및 대학 내 교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쾌적한 입원실 완비

새운암병원

꼭 수술이 필요하십니까?

여기 수술없이 통증을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비수술적 치료의 메카

새운암병원 이 있습니다

재생 주사를 이용한 비수술적 치료

- 만성 허리 통증
- 어깨 회전근개 파열
- 무릎퇴행성 관절염
- 인대 연골판 손상
- 팔꿈치 테니스 엘보 골프엘보
- 근육 파열 손목 인대손상 관절염
- 족저근막 치료
- 손발 저림
- 두통
- 수술 후 재활
- 턱관절
- 만성피로

062)527-0134, 524-8788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35(운암동)